

오늘 폐막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결산

관객들 외면한 '그들만의 축제'

제2회 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31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국비·시비 6억원을 포함, 모두 11억원의 예산으로 치러진 올해 행사는 작품의 수준과 운영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올해는 중학생 동년 관객이 많아 관람 분위기를 해치고 공짜표를 확보한 일부 학생들이 표를 판매하는 등 공연문화도 수준 이하였다. 또 작품 공모까지 진행했던 '청소년뮤지컬 페스티벌'은 다른 지역 축제와 일정이 겹쳐 행사 자체를 취소하는 등 운영에도 난색을 드러냈다.

무용 등 특정 장르 치중 관객 외면 이번 행사는 전체 17개 작품 중 무용이 9개에 이르는 등 특정 장르에 편중돼 지역 공연계와 관람객을 흡입하지 못했다.

모스크바 국립 그렐 무용단의 공연은 "화려한 볼거리가 많아 좋았다"는 평가와 "놀이공원에서도 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던 작품.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좋고 나쁨을 떠나 선정 자체가 주목구구식으로 진행된 점은 개선돼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 여부, 정음성국제음악제에 음악관련 공연을 넣는 문제 등이 오락가락하면서 시간을 낭비, 개인 인맥 등을 동원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급급했다.

관람 문화도 엉망이었다. 특히 가장 공연 횟수가 많았던 무용의 경우 중학교와 무용학원 등 단체 관람객이 대부분을 차지, 공연 내내 떠들고 공연장을 들러가려는 등 공연분위기를

학생 관객 대부분... 프로그램 특정 장르 편중

현대무용 진수 보여준 안은미 공연 호평

망치기 일쑤였다. 특히 발레 '춘향'과 현대무용 공연이 열렸던 25일과 27일에는 일부 여중생들이 공연장 앞에서 공짜로 확보한 수석장의 표를 판매하다 주최측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소리에 민감한 소극장 클래식 공연의 경우 악장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을 들여보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밖에 성악공쿠르는 1회 대회 때 참가자가 188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80여명에 그쳐 아쉬움을 줬으며 문예회관에서 열린 시민참여마당의 경우도 특색 없는 아이들들로 꾸러져 식상함을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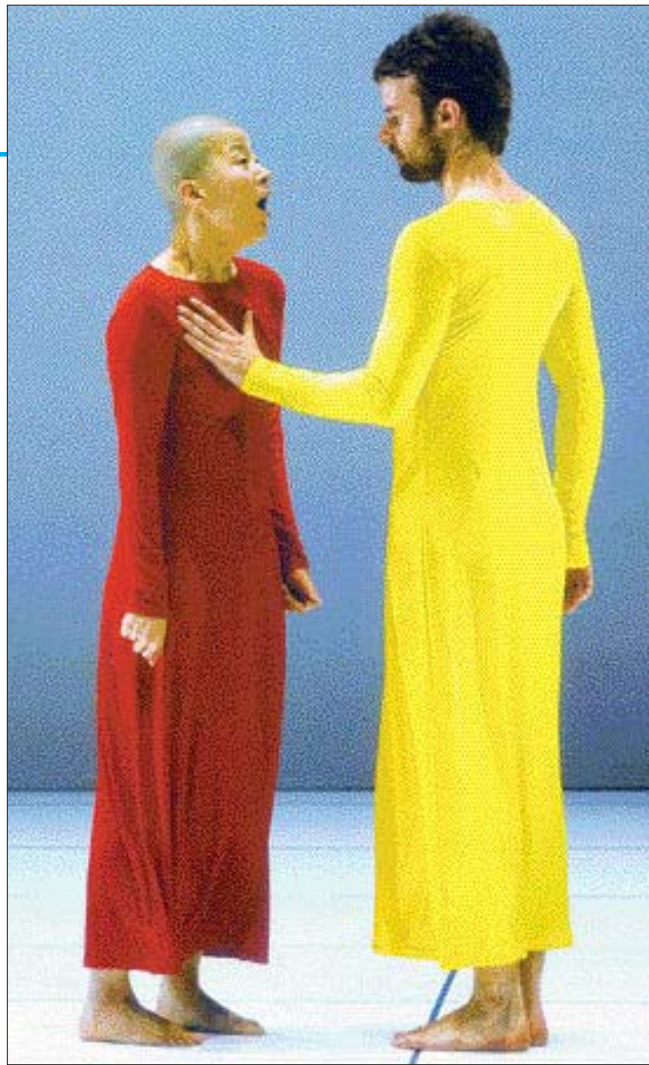
안은미 공연은 화제 모자

볼거리가 부족한 이번 행사에서 현대 무용가 안은미가 이끈 'Let me change your name'은 단연 화제를 모았다. 여자 무용수가 삼반신을 노출하는 다소 과격적인 안무를 선보인 이번 공연은 다이내믹한 몸동작과 조명, 음악이 어우러져 현대 무용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는 매진 사례를 기록했으며 흥보대사 희와 최정원의 '대화가 있는 콘서트'는 작지만 알찬 무대로 관심을 모았다.

이밖에 광주 시내 곳곳에서 열렸던 프리지 공연은 예술제를 알리는 역할을 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예술제를 빛낸 숨은 일꾼들이었다.

집행위원회 체질개선 시급

공연예술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 집행위원회의 구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공연 축제의 핵심인 프로그램 선정이 특정한 몇몇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



31일 막을 내린 제2회 광주국제공연예술제는 무용에 편중된 프로그램 구성으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려는 관객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사진은 행사 기간 중 많은 화제를 모았던 안은미 컴퍼니의 작품.

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에서 가장 큰 공연 관련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연 예술인들의 행사 참가 보다는 특정인들의 행사로 끝난 점은 주최측과 지역 예술인들이 풀어나갈 숙제로 남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송은일씨 장편 '반야' 드라마로 제작된다

릿츠필름, 판권 사들여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 송은일(43·사진)씨의 최근작 '반야(전 2권·문이당)'가 드라마로 제작된다.

출판사 문이당은 "지난 6월 말 영화 기획사인 '릿츠필름'과 30회 분량의 드라마를 5년 내에 제작한다는 조건으로 '저작물 영상화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권을 넘겼다"고 밝혔다.

'반야'의 드라마화를 맡게 될 제작사 '플랜비픽처스'는 "사극 드라마를 찾던 중, 송은일씨의 작품에서 기존의 사극과는 다른 참신함을 발견해 계약을 맺었다"며 "현재 제작 중인 두 개의 드라마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드라마 '반야'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플랜비픽처스'는 창립 작품으로 내년 2월 SBS에서 방영될 예정인 소지섭·정려원·지진희 주연의 드라마 '카인과 아벨'을 만들고 있으며, MBC 드라마 '궁'의 작가 인은애씨와 두 번째 작품을 진행 중이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 송은일(43·사진)씨의 최근작 '반야(전 2권·문이당)'가 드라마로 제작된다. 출판사 문이당은 "지난 6월 말 영화 기획사인 '릿츠필름'과 30회 분량의 드라마를 5년 내에 제작한다는 조건으로 '저작물 영상화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권을 넘겼다"고 밝혔다.

'반야'의 드라마화를 맡게 될 제작사 '플랜비픽처스'는 "사극 드라마를 찾던 중, 송은일씨의 작품에서 기존의 사극과는 다른 참신함을 발견해 계약을 맺었다"며 "현재 제작 중인 두 개의 드라마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드라마 '반야'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플랜비픽처스'는 창립 작품으로 내년 2월 SBS에서 방영될 예정인 소지섭·정려원·지진희 주연의 드라마 '카인과 아벨'을 만들고 있으며, MBC 드라마 '궁'의 작가 인은애씨와 두 번째 작품을 진행 중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색 속에 녹아 있는 순천만의 풍광

김일권씨 서울 포스코 미술관에서 개인전

순천만을 화폭에 담은 서양화가 김일권씨가 서울 포스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김씨는 '고요한 땅, 순천만에서'를 주제로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인 순천만의 풍광을 펼쳐보인다.

순천만은 갈대군락과 철새 서식지 등 빼어난 자연미를 갖고 있는 남도의 대표적인 명소. 그가 그린 작품에는 정겨운 순천만의 풍경이 색으로 녹아있다. 작가는 바다, 하늘, 땅 등 자연적인 풍광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에서 벗어나 포근한 선과 깊은 색



'2006.04.02'

조로 자연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뉴욕시립대 존 제이갤러리', '뉴욕 아카데미 갤러리' 초대전을 비롯 국내외 개인·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 02-3457-0793. /윤영기기자 penfoot@

판소리보존회광주지부 정기발표회

다음달 1일 광주문예회관

지난 2003년 창립된 (사)한국판소리보존회광주지부(지부장 주순연·사진) 제1회 정기발표회가 다음달 1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달아 달아 밝은 달이'를 주제

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김우정, 주순연씨가 판소리 심청가 중 '행선 전야'와 '눈 뜨는 대목'을 들려주며 이경화·고현미·마미숙·김이정·김다정·박진선씨 등이 '풍년가' '방아타령' 등 민요를 선사한다. 또 이왕재·이상호·정희완씨 등이



풍물놀이, 서영호·송영란·임영실씨가 '성금연주 산조'를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주순연·이정화씨 등 출연진과 관객들이 함께 하는 '강강술래'로 꾸며진다. /김미은기자 mekim@

정지 장군의 삶 책 펴내

정찬동씨 등 하동 정씨 경령공파 산음공 종친회 후손들이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사적기록에 나타난 정지 장군(시와사)'을 출간했다. 해군이 최근 진수한 국내 최대 규모(1천800t급) 잠수함의 이름을 '정지함'으로 짓는 등 고려시대 왜구를



토벌한 정지(鄭地·1347~1391) 장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자는 문헌 속 정지 장군의 기록을 모아 삶과 업적을 복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Professional Academy) featuring '문제풀이' (Problem Solving) and '개강 9월 3일' (Starts September 3rd).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Public Brokerage Specialist Final Problem Solving) with '9월 3일' (September 3rd) and '광주고시학원' (Gwangju University of Education).

Advertisement for '영화안니' (Movie Annie) featuring 'Happy Time' and '미스터 브룩스' (Mr. Brooks).

Advertisement for '메가박스' (MegaBox) listing movies like '내 생애 최악의 남자' (The Worst Man of My Life) and '미스터 브룩스' (Mr. Brooks).

Advertisement for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listing movies like '화려한 휴가' (A Beautiful Day) and '내 생애 최악의 남자' (The Worst Man of My Life).

Advertisement for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s like '사랑방선수와 어머니' (The Soldier and His Mother) and '내 생애 최악의 남자' (The Worst Man of My Life).

Advertisement for '무등극장' (Mudeung Theater) listing movies like '두사리' (Two Sars) and '내 생애 최악의 남자' (The Worst Man of My Life).

Advertisement for '제일시네마' (Jeil Cinema) listing movies like '화려한 휴가' (A Beautiful Day) and '내 생애 최악의 남자' (The Worst Man of My Life).